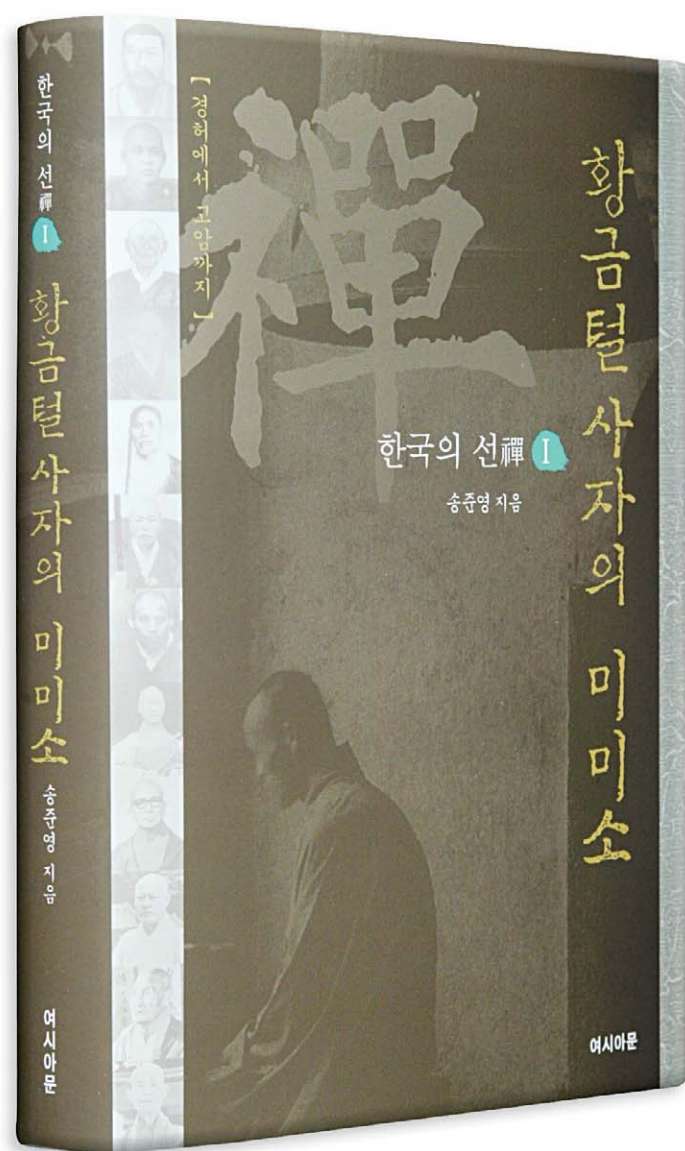


禪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眞面目을 선시로 읽다.



[송준영 지음 / 예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선의 중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선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선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작입니다.

저자 송준영 선생이 말하는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 책의 제목이 뭔가 큰 느낌을 주는데 무슨 뜻인지요?

‘황금털사자’는 선시에 나타나는 ‘금모사자(金毛獅子)’의 한글 번역입니다. 문헌상 처음 금모사자란 이름이 보이는 것은 당대에 어떤 선사가 조주 선사에게 준 “구름 속에 황금털사자가 나타나더라도/정안에 걸조가 아닐 텐데”라는 개승에서 보입니다. 중국 오대산 창랑사는 화엄종의 4조 창랑국사를 기리어 간담하였는데, 창랑국사가 설법할 때에는 구름 속에 황금털사자가 나타났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황금털사자란 우리의 본원의 면목을 그렇게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선시에 보이는 무한 실상의 표현입니다. 흔히 선가에서 이르는 부지(不知)니 불식(不識)이니 불회(不會)의 형상화입니다. 이 책에서는 근현대의 선지식이 우리에게 흘러 보내는 자비심의 실상, 이것의 다른 이름입니다.

- 선시를 통해서 선사들의 생애를 조명하는 것은 참으로 신선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선도 전문적 안목을 필요로 하고 선시도 그렇습니다. 문학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선시가 조사들의 기풍을 이해하는 좋은 창이 될 수 있을까요?
조사님들의 선시는 모두 중생의 눈을 뜨여주려는 자비심의 발로였습니다. 시인은 새로운 미학, 즉 시인이 본 이면의 세계, 피어나는 찰나에 대한 아름다움을 언어로 보여주어야 하는 세계라면 선장들은 생동하는 우리 삶을, 에너지를 이념이나 되새김 없이 바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런 점에서 시와 선이 서로 만나집니다. 그렇지만 그 목적이 있어서 선시는 우리는 본원지, 대자유지인 실상에서 만나게 하는 데 반하여, 시는 사라는 장르에 의해 썩진 언어의 아름다움인 미학적 기쁨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선시이던 모두 중생을 눈뜨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문장이나 전승된 문장이든 관계없이 나타납니다. 선시는 문학의 관심과는 1차적으로 직결된다기보다 선 도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표현되어지지 않는 본래면목을 보여주기 위해 선시 고

유의 수사학이 발달되는데, 이것이 선시의 반상함도, 선시의 초월은유, 선시의 무한실상 등의 모순적 어법에 의해 합도 되는 다른 빼어난 세계입니다. 이것이 오늘 포스트모더니즘이 보여주고자 하는 새로운 상상의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선시의 표현법은 이미 1000여년 계승되어 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위의 수사법은 아방가르드 시나 후기현대주의 시의 중심 사상을 옮기는 수사학과 거의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시를 잘 이해하므로 조사들의 기풍은 물론 실현적인 포스트모더니즘 시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 책은 어떤 구조로 짜여 있는지요. 자료 수집에 애로사항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허 스님에서 전강 스님까지 11명 선사들의 개승-상당법어나 초참법문-직접 쓴 서문이나 서간문-투고 글-대담-선사의 대기대응-선의 법맥-선화로 본 행장-연보 등이 순서대로 실려 있습니다. 가능한대로 문도회에서 만든 어록이나 법어, 그리고 학자들이 기록한 근거 있고 인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로 한정하여 묶었습니다. 그리고 문도회에서 직접 묶은 어록이 없을 때는 그의 스승이나 제자의 어록들을 찾아 제 편집하였습니다. 막상 이렇게 찾아 나서다 보니 턱없이 부족하여 구술된 자료들도 문중하여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책은 '한국의 선시 1'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고, 경허 스님에서 전강 스님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 시리즈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 2권의 자료가 거의 준비되고 있습니다. 고암, 금오, 창담, 탄허, 성철, 서용 등등의 제 선사들의 선시와 선, 2권 역시 12명의 선시를 기록할까 합니다. 특히 1권에서 자료부족으로 삼지 못했던 해월 선사에 대해 기록할까 합니다. 혹 귀중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수월 선사와 해월 선사의 자료를 보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올 겨울이면 제2권이 간행될 것입니다.